

'순창형 기본사회 실현' 협력

'기본사회 순창, 새로운 100년을 디자인하다' ... 군, 기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순창형 기본사회' 실현에 본격 나섰다.

순창군은 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순창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사회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본사회의 철학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

'기본사회 순창, 새로운 100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린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강남훈 명예이사장, 정균승 부이사장(이사장 직무대행), 함효진 사무총장, 송중운 정책연구소장 등 사단법인 기본사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정책사업 기획 및 추진 △정책 모델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기관 연계 △정책 성과 공유와 확산 등 6개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순창군은 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순창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순창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기 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 실행이 이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본사회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정책 전문성과 연구 역량이 결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현실 속에서 순창군이 먼저 길을 열고, 설계하며, 실행하는 선도

지역이 되겠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는 기본사회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단법인 기본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앞으로도 기본사회 TR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해, 농촌에서도 가능한 포용적 사회 모델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본격화

임실군, 23일까지 교육생 모집

임실군이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을 받을 교육생 모집에 나선 가운데 실질적인 영농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에 본격 나섰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에 필요한 기초영농교육을 받을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며,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을 비롯해 농산물 가공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관내 주요 농업 시설에서 현장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농업에 새롭게 진입한 신규농업인과 귀농·귀촌 예정자를 대상으로, 영농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영농기술과 최신 농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초기 영농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과 실제 영농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를 강화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영농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교육 장소를 다양화해 농업 관련 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실제 영농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이번 교육의 특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교육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지원 사업과 농업 인프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내용은 △농업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농기계 안전 사용 이론 및 실습 △작목별 재배기술 △농작업 안전 및 건강관리 △우수 귀농·귀촌인 사례 발표 △농산물 가공·유통 관련 시설 견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영농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의 건강관리 교육을 포함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각 과정은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밀도 높은 교육으로 추진. 영농 전반에 대한 기초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신청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 대상, 일정, 세부 교육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3-640-502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GPS 배회감지기' 무상 지원

임실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노인의 신속한 발견과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GPS형 배회감지기 이용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시계형으로 대어 가능하며, 보호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치매환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심존 범위를 설정해 치매환자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호출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배회감지기 신청 시 임실경찰서와 연계하여 치매환자 지문 등 사전 등록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환자 실종 위험성을 이점으로 예



방하고 있다. 김대곤 원장(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어르신들이 실종되더라도 신속하게 발견되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40-3382)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양봉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

남원시가 양봉농가의 영농 안정화를 도모하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전년 대비 5천6백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한봉·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관내 양봉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 가온관, 꿀병, 사각 벌통, 사료 용해기 등 총 13개 품목의 기자재를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9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시는 개화 시기에 맞춰 기자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양봉 영농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자재를 적기에 지원해 양봉농가의 영농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지원 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행복순창물' 설맞이 할인 이벤트 진행

순창군이 설 명절을 맞아 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행복순창물'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열리며, 기간 중 행복순창물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2,000원 상당의 적립 포인트가 제공된다.

또한 쇼핑몰 내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3,000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돼 명절 선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할인 혜택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네이버 포털에서 '행복순창물'을 검색하거나 공식 누리집(www.happyssmall.com)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순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수산물 취급 음식점 집중 지도·홍보

남원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위해 소독전담관리원 활용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 소독전담관리원을 활용해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굴, 회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 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홍보 활동에 나선다.

이번 활동에서는 식중독 예방 교육 자료 배포와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을 중점으로 진행, 주요 내용으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관리·음식 조리·보관 요령 △노로바이러스 예방 소독제 제조법 등 교육·지도 △식중독 예방 사전 진단 컨설팅이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식중독 가운데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에서 30% 발생, 어패류 원인식품 21건 중 13건이 노로바이러스였다.

남원시 이미경 보건지원과장은 "겨울·봄철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는 소량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며, "음식점 종사자와 시민 모두 손 씻기(흐르는 물+비누 30초 이상)를 철저히 하고, '가열 조리용', '익혀 먹는' 등 표시가 있는 굴제품은 반드시 85°C, 1분 이상 가열조리 섭취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1마을 1자율방재단 구축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마을 1자율방재단'을 전 마을에 전면 구축 완료하고, 지난 1월 28일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상이변 심화로 자연재난이 빈번하고 대형화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방재활동 체

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특히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점 추진 중인 '재난안전분야 강화 특수시책'과 연계된 핵심 과제로, 지역 단위 자율방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시 관내 518개 전 마을에 자율방재단 구성이 100% 완료되었으며, 마을별 지역 여건과 현장 특수성을 잘 살리고 있는 주민들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율방재단은 고령층·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 마을 단위 주민 대피체계 정비,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상황 전파 및 초기 대응 활동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남원시는 방재단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교육·훈련 및 장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